

# 개소세 인하 효과 ... 수입차 훨훨 날았다

코로나19 여파에도 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차 출시 효과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한달간 국내에 신규 등록된 수입차는 전년보다 40% 넘게 증가했고, 광주·전남에서도 수입차 증가율이 30%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차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았던 브랜드는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모델 역시 벤츠의 'E300 4MATIC'이었다.

6월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내에 신규 등록된 수입차는 2만 7350대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동월 1만 9386대보다 무려 41.1%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이 많았던 것은 정부의 개별소비세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신차 출시와 프로모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에서는 총 571대가 등록돼 전년 동월 410대보다 39.3%가 증가했고, 전남은 전년 379대보다 22.2%

6월 한달 광주·전남 수입차 증가율 전년보다 30%대 넘어서 메르세데스-벤츠 압도적 1위 ... 모델 'E300 4MATIC' 인기



메르세데스 벤츠 E-Class.

늘어난 463대로 집계됐다.

지난 한달간 광주·전남에서 총 1034대의 수입차가 등록돼 전년 789대에 비해 34.1% 증가율을 나타냈다.

상반기 전체로는 전국에서 총 12만 8236대가 등록해 작년 상반기 10만9314대보다 17.3% 증가했다.

6월 브랜드별 신규 등록은 메르세

데스-벤츠가 7672대로 전년보다 15.7% 증가하면서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이어 BMW가 23.6% 증가한 40699대로 2위를 지켰고, 아우디 3401대, 지프 1384대, 폭스바겐 1308대, 미니 1301대, 쉐보레 1292대, 볼보 1110대, 렉스 114대, 포르쉐 940대 등 순이었다.

특히 올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의 'E300 4MATIC' 이 이름을 올렸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총 5517대가 팔려 2위인 폭스바겐 '타구안 2.0 TDI' (4831대)를 제치고 국내 판매 수입차 1위를 기록했다.

3위 역시 메르세데스-벤츠의 'E250'으로 3959대의 판매를 기록했고, 4위는 포드의 'Explorer 2.3' (3137대), 5위는 쉐보레의 '콜로라도' (3078대)였다.

지난 6월 한달간 베스트셀링 모델은 아우디의 'A6 40 TDI' (1600대)였고, 2위와 3위는 메르세데스-벤츠의 E300 4MATIC (1376대)과 E250 (1185대) 순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현대차, 프라이빗 바캉스 렌탈 시승 이벤트

### 프라이빗 바캉스 렌탈시승 이벤트



현대자동차는 4박5일 동안 현대차의 다양한 차종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프라이빗 바캉스 렌탈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이달 31일부터 8월 4일까지 2개 차수로 운영되며 차수당 250명씩 총 500명의 고객에게 현대차의 대표 차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대상 차량으로 ▲팰리세이드 ▲아반떼 ▲쏘나타 ▲쏘나타HEV ▲그랜저 ▲그랜저HEV ▲베뉴 ▲코나 ▲코나HEV ▲투싼 등 총 250대를 마련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승센터와 차종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500명의 당첨자를 홈페이지나 개별공지 방식으로 이달 21일 발표할 계획이다.

당첨자에게는 시승차 4박5일 무상 렌탈 기회와 함께, 손 소독제, 소독 물티슈, 마스크, 국내여행책자 등으로 구성된 '안심 여행 키트'도 제공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렌탈 시승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에 관심 있었던 현대차를 타고 안전한 여름 휴가를 즐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기아차 광주공장, 기아위드 따뜻한 도시락 사업 후원



박래석(가운데) 기아차 광주공장장이 서대석(오른쪽) 광주 서구청장과 김천수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에 기아위드 따뜻한 도시락 사업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박래석)은 최근 '2020 기아위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따뜻한 도시락사업' 후원금을 전달했다.

기아위드사업은 기아차 광주공장이 2016년부터 지역사회복지시설, 광주시 서구청과 함께 추진해 온 지역사회통합 프로젝트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날 후원금은 해당 사업에 참여한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도시락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구입한 도시락은 오는 8월까지 광주 서구지역 사회복지시설 11곳과 소외계층 등 120세대 등에 총 2880개가 전달된다.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소외계층에게

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들과 이웃들을 돕기 위해 도시락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아위드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지역 사회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개소세 인하폭 축소에도 자동차 할인은 계속된다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축소됐어도 자동차 할인은 계속된다. 국내 완성차업체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동참해 특별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다.

우선 기아차는 K3, 스포티지, 니로 HEV, 카니발 등 인기 10개 차종에 대해 최대 10% 페스타 할인 혜택이나 36개월의 할부 기간 동안 1%의 특별 저금리 혜택을 선착순 5000명에게 제공한다.

차종별 할인 혜택은 ▲모닝 기본 할인 20만원 및 페스타 할인 2-3% ▲K3 기본 할인 30만원 및 페스타 할인 2-3% ▲스포트지 기본 할인 50만원 및 페스타 할인 3-4% ▲레이, 쏘울, 스토닉 페스타 할인 2-4% ▲K7, 니로HEV 페스타 할인 2-3% ▲스팅어 기본 할인 1.5% 및 페스타 할인 6.5%-8.5% ▲카니발 기본 할인 3% 및 페스타 할인 1-3% 등이다.

현대차도 '더 뉴싼타페' 계약 고객 선착순 1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 한정 계약금 특별 지원에 나선다. 또 승용과 RV, 전기차 주요 차종 약 1만여 대를 대상으로 최소 3%에서 최대 1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현대차, 포터 캠핑카 '포레스트' 출시

현대자동차는 소형 트럭 포터II (2)를 기반으로 한 캠핑카 '포레스트' (Porest)를 6일 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포레스트의 개발 컨셉은 '움직이는 집'으로, 포터(Porter)와 휴식(Rest)을 결합해 이름을 붙였다. 편안하고 넓은 실내 공간을 갖췄으며, 최대 4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대차는 공간 활용성에 가장 중점을 뒀 스마트룸과 스마트베드를 적용해 실내 공간을 전통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룸을 사용하면 차량 뒷부분이 800mm 연장되고, 확장된 부분은 침실로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베드 기능으로 침실을 두 층으로 나눌 수도 있다.

2열 승객석에 주행·캠핑·취침 상황별로 활용이 가능한 가변 캠핑 시트를 탑재해

내부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가변 시트는 주행 중에는 시트, 캠핑 시에는 소파, 잘 때는 침대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밖에 독립형 샤워부스와 실내 좌변기를 선택사항으로 적용할 수 있고, 차량 내 각 창문에는 커튼이 설치됐다.

태양광을 전기로 바꿔 주는 태양전지 패널도 사양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대용량 배터리 및 효율적인 충전시스템을 적용해 캠핑 중 배터리 방전에 대한 걱정을 줄였다. 이밖에 ▲냉난방기 ▲냉장고 ▲싱크대 ▲전자레인지 등 각종 편의사양도 적용됐다.

포레스트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 2인승 모델인 엔트리가 4899만원, 4인승 모델인 스탠다드와 디럭스는 각각 6430만원, 7706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꽃詩로 엮은 꽃으로 오는 소리

꽃詩로 엮은  
꽃으로 오는 소리  
조선의 낭송시집

# 꽃으로 오는 소리

조선의 낭송시집

시인 조선의

"조선의 시인은 꽃을 통해 자신의 시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꽃이 던지는 언어를 깊이 공감하고 상상력과 결부하여 형상화한다. 문학이 응당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는 당연한 자연이다. 그런 사실적 진실을 벗어나지 않은 진정성이 시적 상상력으로 진전한 것이다. 금번 여섯 번째 시집으로 엮어낸 시편들의 문학적 함의와 정서에 대한 호기심은 가독성을 사유토록 야기한다. 그 시편들 속에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진정하게 이뤄내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한 탐색과 모색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박철영 시인·문학평론가

**조선의 프로필**

농민신문신춘문에 당선  
거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안정복문학대상 등 수상

**기독신춘문에 당선**  
백교문학상  
신석정초불문학상

**조선의 시집**

「당신 반칙이야」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어쩌면 쓰라린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돌이라는 새」  
「꽃으로 오는 소리」